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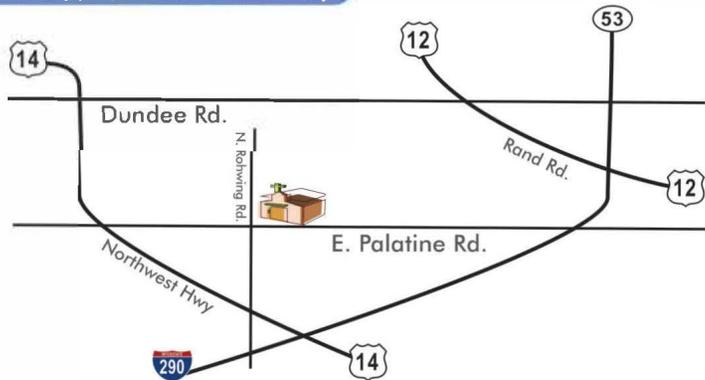
섬김의 교회는...

- ▶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 ▶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교회의 사람으로, 섬김을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 ▶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향해 쉬지않고 성장합니다.
- ▶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행복한 교회와 가정, 개인의 생활을 소망합니다.
- ▶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사역과 삶의 영역에서 세웁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

- 주일 예배 Lord's Day Worship / Sunday 12:30pm
- 주일 학교 Sunday School / Sunday 11:30 am
- 주일 성경공부 Sunday Bible Study / Sunday 11:00 am
- 금요 찬양예배 Friday Services / Friday 8:00 pm
- 새벽 경건회 Early Morning Devotion / Tuesday-Friday 6:00 am
Saturday 7:00 am
- 주간 성경 공부 Bible Study / Tuesday 8:00 pm (zoom)
- 일대일 제자 훈련 Discipleship Class / Monday 10:00 am

교회위치 (Our Location)



섬기는 목회자 : 김성배 목사
 847-691-7846 / www.churchofservant.com
 800 East Palatine Road, Palatine, Illinois 60074

나눔의 달
 신앙 성장과 성숙의주간

건강한 믿음 성장의 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33

꿈이 있는 교회
 섬김이 있는 교회
 어제보다 오늘 더 행복한 교회



환영과 축복

사역과 소식

하나님 앞으로

경배와 찬양 찬양팀과 함께

기도 최 선 윤 집사

주님 가르치신 기도

말씀과 결단

성경 말씀

요한 1서 5: 1-5 (신약 392쪽)

말씀 선포 / 김 성 배 목사

"사랑을 실행하며 승리를 얻으려면?"

결단의 찬송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결단의 기도

헌신과 열매

봉 헌 구 은 강 / 최 내 권 집사

봉헌 찬송 213장 "나의 보화 드리니"(4절)*

삶과 세상 속으로

찬송 602장 "여기에 모인 우리"*

축복 기도 김 성 배 목사*

* 표는 모두 일어섭니다.

예배 시간 10분 전 휴대전화를 끄고 목상으로 예배를 준비합니다.

금 요 찬 양 예 배

찬양과기도

성경: 사무엘상 16:1-5

목상제목: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사울이 죽은 후에도 다윗은 이 내전으로 인해 오래 더 기다려야만 했다. 지난날을 돌아봅니다.

그러나 다윗은 결코 조급해하지 않았다. 그는 성공해야 한다는 사실 자체보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성공해야 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믿음의 사람, 영국의 조지 풀러는 이렇게 말했다.

“결코 하나님을 앞서가려 하지 말라.

결코 성령을 앞서가려 하지 말라.

결코 기도를 앞서가려 하지 말라.”

다윗은 먼저, 가만히 자신의 힘을 착실히 길러가면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오리라 확신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다리게 하시는 시간에는 다 의미가 있다.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묵묵히 하나님의 길을 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기회를 주실 것이다. 그 기회를 기다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 다윗의 숨겨진 전설, 한 흥

함께 하는 기도

주님. 기다리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뤄지기를 계속 기도하며 충성을 다했던 다윗의 마음을 주소서. 하나님은 이미 준비 되셨는데, 우리가 준비하지 않고 언제냐고 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이 우리보다 더 잘하십니다. 더 잘 아십니다. 주님의 시간을 믿고 충성하며 기도로 돌파하는 우리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기다리시게 하는 이유

전쟁이 시작됐다.

당시 이스라엘의 다른 열 한 지파가 모두 사울의 추종 세력과 함께 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다윗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자신들보다 압도적으로 넓은 땅을 차지하고, 수적으로도 훨씬 많은 다른 지파들과 맞서야 하는 일이었다.

그러나 유다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다윗과 함께 하는 것을 확신하고 그를 따르기로 했다.

오늘날에도 세상 권세는 크고 강해 보이며, 사람들은 다 세상 권세를 쫓아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심을 믿고 오직 예수님만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기로 결단해야 한다.

다윗이 사울 왕국을 무너뜨리기 위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다윗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대적하는 사울의 집안이 서로 갈등하고 분열하게 하시며, 스스로 망하도록 역사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세상이 강해 보인다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위축되어선 안 된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묵묵히 순종하며 가야 한다.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키워야 한다.

벌어지는 전투마다 다윗의 군대가 이기긴 했지만, 다윗은 상대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몹시 신경을 썼다. 아무리 전투에서 이겨도 민심을 잃으면 모든 것이 헛수고이기 때문이다.

지금은 적이지만 통일이 되고 나면 다 자신이 다스리는 왕국의 백성들이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가슴에 한을 심어선 안 되었다.

폭군이었던 해도 사울은 사십 년이나 이스라엘을 다스린 왕이었다. 따라서, 그에게 일단 충성을 바쳤던 백성들의 마음을 얻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고, 섬세하고 정성 어린 노력이 필요했던 것이다.

섬김의 교회를 방문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 후 점심 친교를 통해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사역 / 행사

12월 나눔의 달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축복을 가정과 교회, 이웃과 세상과 나눕니다.

2023 주제 말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표어: 성장하는 교회

1. 성장과성숙의 주간 말씀, 기도, 순종으로 믿음의 성장과 삶의 성숙으로 나갑니다.
2. 사역 모임 주일친교 후, 사역의 점검과 계획을 위한 시간을 가집니다.
3. Oikos가정사역 12월 17일 (박진성 집사 가정)
4. 성경 1독 운동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문제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 열심을 냅시다.
5. 연말 사역 준비 성탄 감사 주일, 송구영신 예배, 신년 감사 주일
6. 자녀/부모/사업 한해의 은혜를 돌아보며 가정의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합니다.
7. 기도사역 교회의 사역과 교제, 삶의 현장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고 전도의 모범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8. 연합 사역 살롬교회와 금요 찬양예배(22일)를 우리 교회에서 함께 드리됩니다.

교우노석 구은강 집사: 한국 방문 중

생일축하

오준하(7) 김훈태(19)
박다현(23) 김기자(30)

12월 사역

사역모임(교우/교육/친교) (3), 성장/성숙 주간(3-9)
소금/빛 된 주간(10-16), 선교주일/사역친교 & Oikos(17)
선교 주간(17-23), 송년새벽기도(18-31), 성탄감사주일(24), 송년감사주일(31), 신년새벽기도(1/2-13)

❖ 한 주간의 말씀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 잠언 3:6

말씀 개요 요한 1서 5:1-5
사랑을 실천하며 승리를 얻으려면?

믿음의 본질과 유익은?

예수님을 향한 바른 신앙고백은 사랑의 실천과 신앙의 승리를 가져준다. 세상과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닌, 섬김과 사랑의 대상이다. 고난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하자.

말씀 요약

대강절 기간에 믿음의 유익을 깊이 생각할 때이다.

첫째, 믿음의 유익은 사랑의 실천이다. 이는 하나님의 명령이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형제 자매 사랑의 근거가 된다. 또한, 예수님을 향한 바른 신앙고백이다. 예수님이 세상으로, 아기로 탄생하셨고, 우리 죄를 사하시려 십자가 위에 대신 죽으셨고, 부활 승천하셨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 다시 오신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순종으로 우리가 구원과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사랑은 결코 무거운 멍에나 짐이 아니다. 사랑은 믿음의 열매이며 공동체의 축복이다.

둘째, 믿음은 승리하게 만든다. 성도는 믿음으로 자신과 세상을 이긴다. 표면적으로는 반다인 듯하다. 사도는 고난과 핍박을 받았고, 심지어 순교했다. 요한 역시 유배를 당했다. 그러나, 콘스탄틴 황제는 기독교를 합법화하며, 379년 테오도시우스 황제는 기독교를 로마 제국의 국교로 지정했다. 성도가 믿음에 굳게 설 때, 핍박과 고난을 인내하며 사랑하며 이긴다.

이러한 믿음의 열매인 사랑을 통해 승리를 체험해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 왕이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확실히 알면,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만을 의지 하고 믿음을 사랑으로 실천함으로써 풍성한 신앙의 열매를 거두며 승리하는 성도가 된다. 성탄의 계절에 더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을 실천하자.

기도제목

1. 2023년 개인의 신앙이 성장하고 교회 공동체의 사역이 열매맺도록
2. 삶 속에서 말씀 묵상과 기도로 영성 훈련하도록
3. 전도 우리 삶 속에 복음이 필요한 이를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도록
4. 연로한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
5. 자녀들의 영적 성장과 Youth Ministry를 위해
6. Oikos 가정사역을 통해 회복과 전도의 은혜를 누리도록
7. 선교 사역지와 선교사들을 위하여: 네팔, 뉴욕 박은주선교사
8. 교회 연합과 협력 사역을 위해 / 샬롬교회

예배 섬김이

12월 3일 최 선 윤 집사

주일 기도 인도

10일 구 민 집사
17일 최 내 권 집사
24일 구 은 강 집사

주일 헌금 위원

12월 3일 최내권 / 오정은 집사
10일 최선윤 / 김훈태 집사
17일 김훈태 / 최선윤 집사
24일 오정은 / 박진성 집사

주일 안내

11월 구 민 집사
12월 최 내 권 집사

섬기는 사역자

지도 목사(Lead Pastor) 김성배 목사
찬양 인도자(Worship Leader) 박진성 집사
교육전도사(Youth Pastor) Jacob Kim 전도사